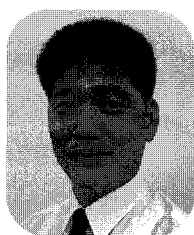




11월 지육시세는 2,100원/kg 예상

- 5월부터 번식성적과 생산자돈수의 감소로 11월 출하물량 감소할 듯
- 연말을 앞두고 있어 현재보다는 소비시장의 회복세 예상

2003년 10월 1, 2주차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비육돈 출하두수는 69,150두로써 전년동기간의 두수대비 2.27% 순증가를 기록하여 당초 전망한 전년 대비 3~5%의 감소 예상과는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3년 9월 3, 4주차의 72,284두보다는 4.3% 감소하여 출하두수 증가세는 일단 멈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월에 들어 서면서 도매시장 지육단가는 더욱 떨어져 10월 2주차의 전국 도매시장의 비육돈 지육단가는 1,917원으로 금년도 최저치를 기록하여 장기간 불황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양돈농가를 더욱 벼랑으로 몰고 있다. 10월 2주차의 출하물량의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가격 하락은 국내 소비시장의 침체에 따른 물량 적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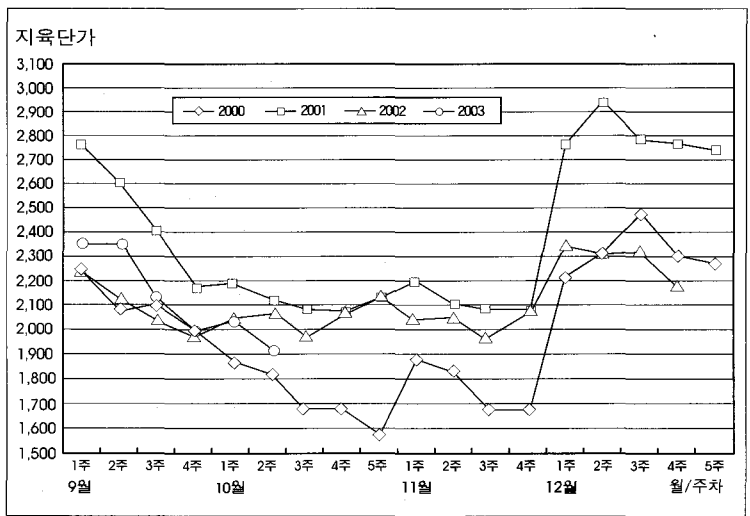


권혁만 팀장
(주)선진마을
모돈/비육계열팀

지연돈까지 가세하면서 육가공 업체의 도축 가능 물량을 넘어 버려 육가공 업체가 도축하지 못하는 출하두수는 도매시장으로 출하됨에 따라 도매시장의 공급두수 증가와 소비감소가 겹치면서 지육단가가 더욱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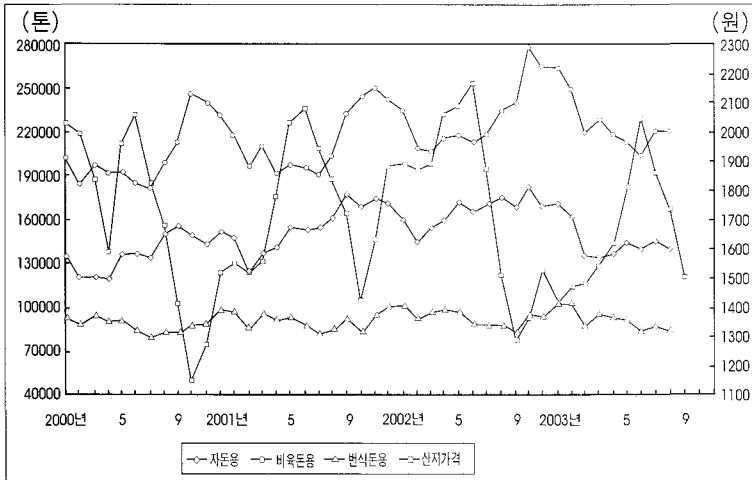
소비시장의 침체는 7, 8월의 성수기 대비 대략 20% 정도 감소된 것으로 보여 현재 돈가의 약세는 소비하락이 더욱 문제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최근 4개년간 전국 11개 주요 도매시장의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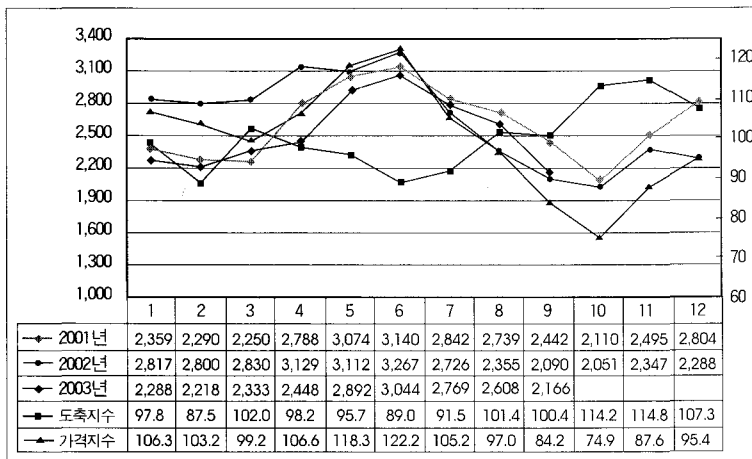


지난 달에도 주장했던 것처럼 가을로 접어들면서 비육돈의 성장률이 빨라지고 여름철 성장

〈그림 2〉 최근 4개년간 월별 사료 생산량의 변화와 돈가동향



〈그림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동향



공급측면에서 살펴보면 2003년도 총사료 생산량은 금년 8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4.1% 감소한 3,665천톤이며 전년동기간 대비하여 자돈 사료 생산량은 14.61% 감소하였고, 비육돈 사료 생산량은 2.1% 증가하여 자돈과 비육돈 사료를 합하면 5.4% 감소하여 전체 출하물량 대비하여 전년 동기간보다 사료 생산량이 줄어들어 앞으로 출하물량이 감소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출하물량의 감소는 11월 출하물량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지난 5월부터 태어난 자돈에서 사고 자돈이

증가하면서 많게는 10% 이상 출하 예정돈이 감소한 농장들도 있으며, 대부분의 농장에서 출하 예정돈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돈가의 하락이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월에 조사한 가축 통계조사 결과 돼지 총사육두수는 전분기 9,051천두보다 236천두 증가한 9,287두로써 2.6% 증가하여 출하물량의 증가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 생산량이 감소한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감각으로는 2003년 5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번식성적의 감소와 생산 자돈수의 감소로 11월 출하분부터 출하물량의 감소가 예상된다.

종합해 보면 2003년 11월 전국도매시장의 비육돈 출하물량은 감소하고 연말을 앞둔

소비증가가 발생하면서 10월 보다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소비 시장이 현재보다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소비 시장의 장기간 침체시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 홍보와 비육돈 수매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더 이상의 가격 하락은 많은 양돈 농가들을 벼랑으로 몰아 큰 폭의 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2003년 11월 전국 주요도매 시장의 비육돈 지육단가는 2,100원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양돈**